

국힘 “안규백, 방위 출신” vs 민주 “안보 최고 위협은 내란”

청문회 이틀째도 격돌...국방위, 군 복무 경력 등 설전 산자위, 증인 채택 갈등...與 “비방·인신공격만” 비판

여야는 15일에도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야당은 일부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몰아붙였고, 여당은 방어선을 탄탄하게 쳤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방장관 후보자는 장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공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복원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병적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병적 기록에 상급자의 평가도 나온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거부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한기

호 의원은 “병역 카드에 그제(평가) 왜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이 한성숙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해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여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인사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주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성숙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검증이 반복되는데, 우리 청문회에서는 정말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어 좋다”며 “전일 정권 장관들은 전문성은 있지만 소신이 부족했고,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약간 후퇴가 있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탈원전 기조를 가진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매몰돼 환경부 본연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K와 SK

C&C의 합병 비용’ ‘호반건설 증여 이슈’를 지적하는 질의에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규백 “현 정부 임기중 전작권 전환 목표”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전환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

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개호 “실추된 대한민국 위상 외교로 회복”

16~19일 특사 자격 인도 방문

“내란으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외교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외교 위상 회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사단을 파견하게 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양국간 정상급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강

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양국이 제조업 분야 우주의 협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으로 해소 뿐만 아니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을 통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의 경쟁에서 인도 내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도 요청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문기간 동안 인도 무르무 대통령과 모디 총리, 움 비라라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모디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대한 감사 표명과 함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 준 지난 6·3



대선의 의미,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강국의 실현에 대한 우리나라 대외정책 방향,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에 대해서도 인도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방산 및 국방 협력에 대해 인도측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반도체, 조선, 그린수소 등 인도 측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협력해 가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총리가 단장이며, 이개호 의원과 송순호 선대위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 방문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전교조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사퇴해야”

“제자 논문 표절...연구 윤리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사

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해당 논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였던 과제의 일환이고, 실질적 기여는 본인이 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

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간 것과 관련해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